

現代重工業, “90세계 최우수 선박” 선정

현대중공업 이 덴마크의 에이.피. 몰러(A.P.Moller)社로부터 주문받아 건조한 LPG운반선이 미국의 유명 해운전문잡지인 <마린 로그(Marine Log)>誌에 의해 '90년 세계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건조한 LPG운반선이 '90년 세계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됨에 따라 건조한 각종 선박이 8년 연속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미국의 유명 해운전문잡지인 <마린 로그>誌와 <마리타임 리포터>誌는 매년 12월초에 그해 건조된 선박중 디자인, 성능, 기술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박을 선정해 왔다.

이번에 세계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된 덴마크 에이.피.몰러사의 3만5천m³ LPG운반선 <야네 마스크(Jane Maersk)>호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88년 12월 선주사로부터 수주하여 90년 6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지난 11월에 인도되었다.

三星航空, 防産사업 일부 三星電子에 양도

삼성항공 은 특수 사업부문 가운데 방산 전자관련사업의 일부를 삼성전자에 양도하기로 했다.

사무실 변경

신일금속공업(주)의 사무실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일자	1990. 12. 14.
이전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백상빌딩 606호)
本社전화	(051) 311-7501/5
F A X	(051) 322-4339

삼성항공은 1990년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기술인력을 삼성전자에 재배치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로 양도될 분야는 야간투시경 제조와 함정 및 전차 사격통제시스템 사업중 전자관련분야이다.

(주)코오롱 “인공지능(AI)섬유” 개발

(주)코오롱 은 최근 대기의 온도가 내려가면 보온성이 높아지고, 올라가면 낮아지는 보온기능을 스스로 알아서 조절하는 「인공지능 섬유」를 개발해 내는데 성공했다.

「Thermilon(서밀론)」이라 명명된 이 「인공지능 섬유」는 기존의 보온소재가 가졌던 단점인 무조건적인 보온기능을 없앤 <생각하는 섬유>이다.

이번에 개발한 「Thermilon」은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감온변색 기능」과 바이오 세라믹을 이용한 「축열 보온 기능」, 그리고 땀과 습기는 방출하고 비나 물기는 막아내는 「투습 방수 기능」등 3가지 기능이 혼합된 고기능성 섬유소재의 결정체이다.

이 「Thermilon」은 대기의 온도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원단의 색상이 스스로 검은색으로 변해 태양에너지의 흡수량을 높이는 한편, 이를 바이오 세라믹이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보온기능을 강화하며, 주위 온도가 올라가면 본래의 색상으로 되돌아가는 첨단 Thermostat(온도조절장치)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특히 「Thermilon」은 바이오 세라믹에 의해 태양에너지와 인체에서 발산하는 열을 모아 원격외선을 방사하므로 보온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촉진, 세포 분자 활동의 촉진 등 건강증진 효과도 발휘한다.